

김영건(金永鍵)의 한국대외관계사에 대한 인식과 해방 직후 활동*

안 중 철**

-
1. 서론
 2. 한국대외관계사에 대한 인식
 3. 해방 후 역사인식과 활동의 관계
 4. 결론
-

■ 국문요약

본고는 격변의 시기인 식민지와 해방직후의 시대를 살아간 한 김영건이라는 지식인을 다룬다. 김영건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베트남 하와이의 ‘원동학원’이라는 프랑스의 식민지 연구기관에서 1931-1940년 기간에 일본과 동남아시아관계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연구했다. 그는 이후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일본을 거쳐 조선에 돌아와서 한국문제, 특히 한국의 대외관계사와 문학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한반도가 전통시대부터 동남아, 만주 등과 맺었던 관계망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울러 그는 국제적 경험에 더불어 중등학교에서부터 가졌던 문학과 마르크시즘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해방 전후로 한국 민족문제에 눈을 떴다. 해방 후 김영건은 진단학회와 같은 ‘순수’ 학문연구기관과 함께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좌파’ 조직의 산하 문예단체인 조선문화단체 총연맹에 참여하면서 중간급 관리자로서 정치

* 학술회의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최병욱(인하대), 김명인(인하대), 노관범(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제 선생님께 감사하며 그분들 논평이 논문 수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와 문학, 학문 등의 관계를 고민했다. 아울러 그는 언론인으로서 해방 정국에서 활동했는데 그의 상급자들이 정세변화에 따라 월북함으로써 남한 내 그의 위상은 더욱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좌파로 ‘과학적’ 학문의 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졌던 김영건의 활동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 남과 북의 대립관계 속에서 사회적 운명을 다했다.

주제어: 김영건, 베트남, 진단학회,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 조선문화단체 총연맹, 한불관계

논문 투고일: 2009.11.06. / 심사완료일: 2009.11.12. / 게재 확정일: 2009.11.19.

1. 서론

일반적으로 역사가가 역사학의 소재를 선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역사가가 연구대상으로 삼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대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역사학자 자신에게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글이 다루는 김영건(1910~1949?)이라는 인물은 어쩌면 후자에 가까운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황해도 의 군수를 역임한 아버지 김정현(金定鉉, 1868~?)의 직장 때문에 어린 시절 해주인근에서 자라다가 식민지 京城에서 제2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재학: 1923~27)했다. 1927~31년 동안 고등교육을 받은 후 1931~40년에 베트남의 '월동학원'이라는 프랑스의 식민지 연구기관에서 司書로 있으면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연구한 인물이다. 1940년 일본의 베트남침공에 즈음한 정치적 급변속에서 그는 일본에 가서 일본민속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1943년에 조선으로 귀국했다. 이후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해방 후에는 '진보적' 혹은 좌파문학단체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한 문학가이자 언론인이기도 하다.¹⁾

그는 다른 유명한 정치인이나 학자만큼 알려지지 않은 중견급의 인물

1) 김영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저술 목록, 그리고 베트남사 연구의 특징은 윤대영, 「김영건(金永鍵)의 베트남 연구 동인(動因)과 그 성격: 1930~40년대, 그의 "전변무상(轉變無常)"한 인생 역정과 관련하여」(『동남아시아연구』19권 3호, 한국동남아학회, 2009)에서 자세히 언급이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현재 그의 이력상 고등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1927~1931년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경성제대, 히로시마 사범학교, 동경사범학교 중 한 곳을 다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는 식민지 고등교육을 받고 베트남에서 프랑스어를 배웠기에 일본어, 프랑스에 능통했다.

이므로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김영건에 대해서는 인류학자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몇 개의 연구가 있다.²⁾ 그러나 그가 한국학과 관련해서 남겨놓은 다양한 업적들에 대한 분석이나 해방 후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 글은 김영건의 한국관련 인식을 다루면서 그의 인식과 활동이 1930-40년대 한국사회의 지적 풍토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오늘날에 남겨놓은 유산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그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진단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사학계와 어떤 관련을 가졌고 역사인식과 더불어 그의 해방 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방 후 한국사에 대한 그의 인식과 진단, 그리고 자신의 대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역사적 국면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이는 식민지시기인 1920년대로 소급되는 개념으로 둘 다 공히 민족주의에 기반 한 것으로 전자는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 후자는 서구의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옹호한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이후 태평양전쟁 기간(1941-1945)의 파시즘 체제를 겪으면서 그 의미는 복잡해졌다. 특히 우파(일부 좌파도 포함)는 이 시기 국가주의적 성향을 보여주었고 이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해방 후인 1945년 말 신탁통치 파동과 1946년 1차 미소공동위원회 회담결렬을 겪으면서 좌파는 위의 의미에 더해 철저한 친일파청산(특히 경찰과 관료), 토지분배(주로 무상몰수와 무상분배), 그리고 소련과의 협조를 강조함에 반해 후자는 친일파청산에 대해 미온적(반대도 포함) 태도, 토지분배에 대한 유상(有償)차원에서 해결, 미국과의 협조(때로는 대립)라는 입장을 보였다. 해방공간에서 좌파는 ‘민족’이라는 담론을 사용했지

2) 임동권, 「김효경·김영건론」(『한국민속학인물사』, 보고서, 2004); 전경수, 『한국인류학백년』(일지사, 1999); 그리고 윤대영, 위의 논문 등을 들 수 있다. 김영건의 연구들에 대한 정리는 윤대영, 같은 글, 58-60면 참조.

만 ‘민주주의’라는 수사를 더 선호했고 우파는 ‘민족’이라는 담론을 통해 식민지기의 과시증체제에의 협력의 경험을 덮고 해방 후의 정국에서 헤게 모니를 장악하고자 했다. 정부수립이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여기에 더해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태도여부가 좌·우파를 구분하는 주요 척도로 사용되기도 했다.

2. 한국대외관계사에 대한 인식

김영건은 알려진대로 베트남을 연구한 학자이다. 그러므로 그가 한국 문제를 다룬 소재와 문제의식은 베트남연구로부터 출발한 측면이 있었다. 김영건의 다음의 언급은 그가 왜 한국문제를 왜 다루게 되었고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게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처음부터 나는 朝鮮史를 專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찍부터 外國의 文獻을 涉獵하는 동안에 朝鮮에 關한 史料들로 내가 朝鮮에 紹介해 보았으면 하는 것들을 여기 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 그 것들을 그 채로 내버려두기는 아깝고 하여 나는 틈있는 대로 조금씩 「노-트」를 해두었다.³⁾

즉 그가 베트남에서 일하는 동안 조선관련 문헌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조선사회에 소개할 생각으로 자료를 모아둔 것이 한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베트남에서 1930년대 활동할 때도 진단학회 측과 계속 교류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는 진단학회 측의 인사, 특히 한국의 대외관계를 연구한 湖巖 문일평(文一平, 1888~1939)의 격려가 있었다.

3) 김영건, 『朝鮮開化秘譚』(正音社, 1947), 3면. 이하 인용문의 어색한 표현들은 원문 그대로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近代朝鮮의 對外關係에 關해서만은 故 文一平先生께서 多幸히 그 貴重한 첫 「폐지」를 開拓해놓아 주시었다. 湖岩선생이 살어계실 때에 激勵해주신 말씀도 있고 震檀學會의 先輩들이 늘 激勵해주는 말씀도 있고 하여 나도 나의 菲才를 돌아보지 않고 뒤로는 좀 더 科學的으로 이 方面에 관한 調査와 研究를 거듭해보고자 하는 바이다.

아울러 진단학회의 이병도, 홍이섭 등이 한반도와 외국과의 교섭에 대한 사료들을 소개하기 시작한 것도 김영건이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⁴⁾ 그가 한국대외관계사를 ‘부전공’한 데는 이러한 인적관계망이 있었다.

그가 베트남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면서 발표한 글들 대부분은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⁵⁾ 그 후 1940년 일본과 미국 간의 갈등 이후 일본을 거쳐 1943년 경 조선에 귀국한 후 김영건은 한국의 대외관계를 다룬 짧은 글들을 몇 몇 저널에 기고했는데 이들을 함께 모아서 해방 후 책으로 출간했다.⁶⁾ 이로 보건대 그가 한국문제를 다룰 때 조선과 베트남과의 관계, 혹은 다른 외국과의 관계를 다룰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한국대외관계사에 대한 인식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베트남사를 연구하듯이 한국사상의 흥미있는 대외관계의 소재들을 선별적으로 다룬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화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특히 조선과 프랑스의 관계를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둘 모두는 김영건의 베트남대외관계사, 프랑스와 동아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
- 4) 김영건, 「亞刺比亞人の Si-la (新羅)」(『黎明期の 朝鮮』, 正音社, 1948), 10면.
 - 5) 수많은 저널에 연구들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모아 책으로 출간한 것이 金永鍵,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富山房, 1943) 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윤대영, 앞의 논문, 86-87면.
 - 6) 『朝鮮開化秘譚』(正音社: 1947)과 앞의 『黎明期の 朝鮮』 이다.

1) 전통시대 한반도의 대외관계

우선 김영건의 한국의 대외관계사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한국사에서 “朝鮮과 南海 또는 西域과의 關係”는 조선과 외국과의 관계 중 “가장 重要한 命題의 하나”로 보았다.⁷⁾ 그가 한국의 대외관계사 중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고대 한반도와 남해와의 교류라는 것과 그것이 근대 서구와의 접촉과 일정한 연속성을 갖는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즉 한국사는 고대부터 외부와의 접촉이 한국사의 한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영건은 고대 신라의 혜초(慧超)가 당(唐)에서 남해를 거쳐서 인도(天竺)를 오간사실에 주목했고 더불어 신라가 아라비아인들과 교류한 것도 남해를 무대로 했음을 강조했다. 고려시대에는 한반도와 남해의 류우큐우(琉球), 버마(暹羅斛), 마팔아국(馬八兒-인도남부의 국가: 필자) 등의 관계로 좀 더 체계화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남방과의 교역은 남만제국(南蠻諸國)과의 교섭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았다.⁸⁾ 그는 고대에 이미 신라가 아라비아인(亞刺比亞人)에게 알려졌고 이 두 지역에는 활발한 교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본학자들의 의견을 의식하면서 고대 한반도와 해외의 교류의 증거로 일본의 쇼오소오인(正倉院)에 보존되어있는 고대 한국 유물이 중앙아시아의 직물에 나타나는 문양과 비슷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⁹⁾

7) 김영건, 「서문」, (『黎明期の 朝鮮』, 正音社, 1948), 5면.

8) 김영건, 위의 책, 6-8면.

9) 김영건, 「亞刺比亞人の Si-la (新羅)」, 위의 책, 15면. (이 글은 원래 『서울신문』 1947년 9월 6일 자 학술란에 실렸었다). 그러나 그는 1513년 말라카반도에 있던 포르투갈인의 기록에 등장하는 ‘고오르’ 혹은 ‘고오레스’가 일본 혹은 류우큐우인을 가르키는 것이라는 일본학자들의 의견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조선인들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葡萄牙人の Gores와 高麗의 問題」, 같은 책, 17-27면.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사에서 김영건의 흥미를 끈 것은 베트남 위엔(阮) 왕조의 왕자로 자신의 국가 社稷이 위태로운 때에 고려로 망명해서 花山李氏의 선조가 되었던 이용상(李龍祥)이었다. 그는 이용상 3대의 묘소가 있는 황해도 옹진군 마산면 화산리 근처를 직접 답사하면서 관련 자료(『甕津郡郡勢一般』, 『甕津郡北面面勢一般』, 『甕津郡郡勢要覽』, 『花山李氏世譜』 등)를 수집하기도 했다. 특히 원나라가 침입해온 고려 중기, 이용상은 인근에서 부대를 조직해서 원나라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두었고 이에 고려조정이 그를 화산군으로 封爵했음을 사료로 보여주었다.¹⁰⁾

김영건은 조선시대에 북경에 사신으로 간 芝峯 이수광(李睟光)이 베트남 사신과 면담한 기록인「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을 분석하면서 이 자료에 당시 베트남 국내정세의 변동이 언급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를 통해 조선과 베트남의 간접적 교류의 사실을 주장했다.¹¹⁾ 그는 조선시대에 조선인 중에서 베트남에 표류한 사람들의 존재에 주목하기도 했다.¹²⁾

조선시대에서는 임진왜란과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임란 직후 조선인 사신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측에서 환대를 받았던 것을 언급했다. 이는 개화기 때 김기수(金綺秀)가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동일한 것이었다.¹³⁾ 그러나 영국의 동인도회사 측이 조선과 무역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보여주었다.¹⁴⁾ 어쩌면 이때가 조선의 쇄국 정책을 바꿀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울러 조선과 만주의 관계에서 18세기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든가

10) 김영건, 「蒙古兵을 擊退시킨 花山君 李龍祥의 事績」, 위의 책, 28-49면.

11) 김영건,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 위의 책, 50-59면. 그는 이병도에게서 이 기록의 필사본을 건네받아 베트남 하노이의 프랑스 동양학원에 기증했다. 이처럼 그는 진단학회에서 다수의 도서를 받아서 원동학원에 기증했다.

12) 예를 들면 조선 숙종대 제주도의 주민 중 고상영(高商英)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에 표류한 일이 있었는데 역관 이재담(李齋聃)이 고상영과 면담한 기록이 있다. 김영건, 「濟州道民의 安南漂流記」, 위의 책, 91-94면.

13) 김영건, 「壬辰倭亂과 遣日使節」, 위의 책, 78-85면.

14) 김영건, 「『콕스』의 書翰에 나타난 朝鮮의 對外貿易」, 위의 책, 89면.

국경근처의 조선마을이 매우 수준 높은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중요한 사실로 언급했다.¹⁵⁾ 조선의 대외관계를 다룬 그의 글의 근거자료는 일본에 와있던 동인도회사 직원의 일기라든가 북경에서 만주로 답사 온 프랑스 선교사들의 기록 등이었는데 이들은 그가 직접 참고했던 것 같다.¹⁶⁾

김영건은 조선 말 철종 13년(1863)에 조선에 발생한 기근으로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소련영내, 특히 연해주와 시베리아로 넘어간 사실을 주목했다. 이와 관련되어 1876년 프랑스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와 함께 개최된 국제민족과학학회에 제출된 이 학회 회장 “앙리 뒤 로너-”가, 러시아인 “뿌실로”가 1874년 시베리아지역에 와서 조사한 조선인들의 기록을 소개한 사실을 지적했다.¹⁷⁾ 김영건은 프랑스어로 된 논문을 직접 보았던 것 같다.

김영건의 한국대외관계사의 인식 중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강렬한 민족의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고대 조선의 존재에 대한 일본 측 연구자들의 의도적인 생략이라든가 중국에서 나온 지도들이 조선과의 국경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해방 직후 신국가 건설에 대한 꿈을 가졌던 많은 조선인 지식인의 당연한 반응이었다.

2) 개화기 조선의 대외관계

개화기는 김영건이 인식하듯이 가장 최근의 조선의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시기로서 근대 한국의 운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9세기 서구열강의 접근과 프랑스, 미국과의 전투(병인양요, 신미양요), 천주교 탄압, 그리고 조선의 개항과정 등에 대한 그의 소개는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개론적인 내용이다.¹⁸⁾ 그리고 그는 조선시기에 조선인들이 “公公然하게 海

15) 김영건, 「古代의 滿洲와 朝鮮」, 위의 책, 74-76면.

16) 예를 들면 김영건, 위의 책, 71면 참고.

17) 김영건, 「西伯利亞와 朝鮮의 移民」, 『朝鮮開化秘譚』, 正音社, 22-25면.

外로 發展할 길”이 없었지만 구한말에야 조선인들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나가게 되었다고 보았다.¹⁹⁾ 조선의 개화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은 이 시기 사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총독부 중추원이라든가 경성제대 법문학부 등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설명은 다분히 문일평(『한미관계오십년사』등)이나 기존 연구에 의존한 감이 있다.

김영건의 구한말 인식에서 흥미로운 부분이자 중요한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프랑스에 소개된 조선의 문화라든가 초기 한불관계사를 다룬 글들이다. 우선 그는 프랑스인들이 조선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해외에 소개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와 조선의 가교 역할을 한 인물로서, 김옥균의 암살범으로만 알려진 홍종우(洪鍾宇, 1854-1913)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밝혀내었다. 홍종우는 조선정부의 관료의 아들로 1890년 프랑스에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프랑스인들의 배려로 공부도 하고 기메박물관(Guimet Musee)에서 2년간 촉탁(囑託)으로 일했다.²⁰⁾

주지하듯이 홍종우는 김옥균을 상하이로 불러서 그를 암살했는데 이는 그가 조선정부와 모종의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영건도 홍종우의 김옥균 암살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김옥균이 주도한 갑신정변(1884)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해 “國際의 情勢에 어두운 政治家가 오즉 他國의 勢力에 依存하여 자기 나라의 獨立을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資料”라고

18) 김영건, 「近世朝鮮과 外國과의 交渉」, 위의 책, 12-17면.

19) 특이하게도 그는 민영환이 광무 2년(1898년)에 세계각국을 돌아다니게 된 일(이것은 1896년 러시아황제의 민영환이 대관식에 참여한 일을 염두에 둔 듯)이 “우리들이 正式로 海外로 進出을 하게 된 嚆矢”였다고 보았다. 이즈음 구한국에도 외교부가 생겼다고 했다. 김영건, 「海外와 朝鮮人」, 위의 책, 7면. 물론 이러한 인식은 오해인데 구한말의 역사가 해방 전후에도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 김영건, 「洪鍾宇에 關한 資料」, 위의 책, 63-70면.

평하면서 “우리는 人民의 힘을 土臺로 한 革命의 힘만이 오직 우리 國家의 建設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²¹⁾ 이는 해방 후 김영건의 ‘인민민주주의’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홍종우는 기메박물관에서 일하면서 프랑스 학자(장 뒤 로니-)가 『춘향전』을 번역할 때 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가면서 초벌 번역을 했고 그와 함께 『심청전』을 불어로 『枯木再花』(1895)라는 제목으로 번역하기도 했다.²²⁾ 그는 서구에 조선의 역사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우려해서 이 책의 서문에서 조선의 역사를 일부 설명했다.²³⁾ 아울러 조선의 점성술에 관한 책을 프랑스 학계에 소개해서 흥미를 끌기도 했다. 점성술에 관련된 책은 제목을 “每人을 占制하는 幸運의 星辰을 돌아오게 하고 當年의 吉凶을 알도록 이끄는 책”이라고 붙였는데 이는 『直星行年便覽』이라는 자료로 이 글은 『기메-博物館年譜』 제 26권 제 2호(1897년)에 실렸는데 이는 당시 박물관의 관장이자 창립자인 ‘기메-(Guimet)’가 직접 ‘앙리 쇠바리에’와 홍종우에게 번역을 요청해서 이루어졌다.²⁴⁾

언급한대로 김영건의 개화기 부분에 대한 발표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초기 한불관계사부분이다. 우선 그는 프랑스인 ‘폴랭 뒤 뵈랑씨

21) 홍종우의 김옥균 암살에 대해서 김영건은 이미 청일전쟁이 가까워 온 시점, 즉 김옥균이 살해되기 전, 일본에게 김옥균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고 보았다. 김영건, 위의 책, 71-72면.

22) 김영건, 『海外에 紹介된 『春香傳』』, 위의 책, 27-29면. 그 후 프랑스에서는 1895년에 춘향전이 불어로 번역되었다고 한다. 『枯木再花』는 『기메-博物館年譜』 通俗文庫 제 8권으로 발행되었다. 김영건, 『佛國에 紹介된 『深清傳』』, 같은 책, 33면.

23) 그러나 오히려 W. G. 아스톤은 홍종우가 조선의 역사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을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서문에서 홍종우는 조선에서 공화정치는 천만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건, 『佛國에 紹介된 『沈清傳』』, 위의 책, 35면.

24) 홍종우가 중간에 들어오게 되어서 나머지는 “앙리 쇠바리에”가 W. G. 아스톤의 조력을 얻어서 마치게 되었다. 김영건, 『歐洲의 學界에 紹介된 『直星行年便覽』』, 위의 책, 30-32면.

(Collin de Plancy, 한국명 葛林德) 초대 공사와 조선 外部와의 외교조약의 체결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 특히 1886년 6월 4일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외교조약과 그 후속조치로서 이듬해 체결된 비준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 특히 그는 조불조약이 “基督敎의 宣敎師를 비롯하여 佛國人의 生命과 財産이 完全히 安全케 되었던 것은 이 번의 條約이 큰 効果이었다”고 평가했다.²⁵⁾ 이는 물론 조불조약을 통해 서구인들이 조선에서 종교자유를 획득했다는 통속적 이해를 반영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프랑스, 혹은 서구중심의 이해방식으로 당대의 맥락이 결여된 인식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고종 당시의 조선정부는 大院君 통치하(1864~1897)에서 선포된 ‘기독교 포교 금지령’을 철회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²⁶⁾ 기독교 포교문제는 일본이 조선에 ‘보호조약’을 강제해서 체결한 1905년까지도 간간히 문제가 되었다. 사실 일본이 한국병합 전후로 선교사들을 포함한 서구인들에게 ‘한국병합’의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성공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조선총독부가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것이었다.

플랑시가 영사로 온 1880년대 후반 조선은 청의 간섭으로 독립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조선정부는 프랑스정부에 領事가 아닌 독립국가에 파견하는 높은 직급인 公使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

25) 김영건, 「朝鮮 外交史의 一面」, 위의 책, 40-45면.

26) 조불조약이 과연 조선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이 조약문의 해석을 통해 프랑스 신부들이 내지를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획득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조약문에 들어 있는 프랑스인이 언어, 문자, 율례 등을 “배우거나 가르치기 위해”(學習或敎誨語言文字格致律例技藝者; pour y étudier ou y professor) 조선에 올 수 있다.”라는 구절이 과연 전면적인 종교자유를 허용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敎誨”는 문맥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198-211면; 한불조약의 원문은 서중석 외편, 『구한말조약휘찬』 하권 (국회도서관, 1964~1965), 96-112면 참조.

고 플랑시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플랑시 개인의 재정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랑시는 3년을 조선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불간에 무역, 외교, 문화 등에 중요한 가교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 그는 조선의 書誌를 프랑스에 보내서 유럽에 소개했다. 이 때 공사관의 통역 겸 서기관이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이었는데 그는 『朝鮮書誌(La Bibliographie Coreenne)』 4권을 발간해서 조선에 관한 정보를 해외에 소개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²⁷⁾ 이는 플랑시와 함께 꾸랑이 조선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서적들을 수집한 결과였다.

후일 모리스 꾸랑은 1900년 여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만국박람회의 조선위원이 되어 1898년 여름부터 조선물품의 진열에 힘을 쏟았다. 아울러 ‘되로-르 되 그레옹’ 남작이 조선관을 자비로 세워주겠다고 했으므로 되그레옹이 조선위원단의 대표로 임명되었고 조선주재 프랑스 총영사 등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조선 측에서는 민병석, 고용건, 윤덕영, 이윤용, 이근배, 정용두 등이 참여했다.²⁸⁾ 이는 갑오개혁 이래 조선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참여한 첫 박람회였다.

구한말의 한불의 문화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사례는 1896년 가을에 서울에 세워진 불란서어학교였는데 주강사는 ‘에밀 마르텔’로 그는 식민지 시기 경성제대 법문학부와 YMCA에서 강사로 가르치기도 했다.²⁹⁾ 한편 한불문화사에 중요한 것으로 식민지시기 최승희가 프랑스에서 공연을, 김법린 등이 소르본느 대학에서 유학을 한 경험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영건은 한불간의 문화적 교류를 해방이후에도 지속하기를 원했는데 특히 “世界的으로 높이 評價되는 佛蘭西의 科學과 藝術이 朝鮮의 學

27) 김영건, 「朝鮮과 佛蘭西와의 修交-플랑 되 뿔랑씨의 활동」(『朝鮮開化秘譚』, 正音社, 1947), 55-57면.

28) 김영건, 「朝鮮과 佛蘭西와의 文化關係」, 위의 책, 75-79면.

29) 김영건, 위의 책, 80-81면. 필자는 김영건이 경성제대 법문학부에 몸담았으면 서 그에게 불어를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術界와 文化界에도 좋은 影響을 많이 미치게 해주기를” 바랐다.³⁰⁾

한편 김영건이 전하는 구한말 프랑스외교관이 바라본 조선의 상황은 매우 흥미롭다.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 서울에 있었던 영사 ‘쥘세프 프랑탱’이 기록한 서울의 모습은 당시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준다. 그는 당시 국왕 고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李熙 陛下는 키가 적으신 분이다. 그의 얼굴에는 仁慈하고도 智慧스러운 빛이 나타나보인다. 그의 검은 눈은 慇懃한 ‘멜랑꼴라.’의 標式과도 같해보인다. ...그는 知識을 얻는 것을 좋아하시어 謁見을 許諾한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歐羅巴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잊지 않고 물으신다.

아울러 프랑탱은 당시 조선의 “宮闈안에는 電氣와 大砲와 六穴砲와 그리고 速射砲와 같은 것들이 작만되어 있다. 그(고종: 필자)는 얼마의 外國 사람들까지도 採用을 했는데 그 中의 몇 사람들은 참으로 功있는 사람들이었다. 萬一에 그들의 忠告만 좇았드라도 좋았을 것이다”라고 조선의 근대화 시도와 그 한계를 아울러 적고 있다. 그리고 섬뜩하게도 “그렇기 까닭에 朝鮮은 피비린내 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를 革命의 前날 밤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³¹⁾

김영건은 구한말 서울에 주재한 프랑스외교관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알려준다. 또 당시 조선인의 인구라든가 외국인들의 숫자 등을 프랑스 측의 자료를 활용해서 자세하게 기록했다.³²⁾

한편 그는 조선말의 중요한 자력 근대화의 지표로 조선의 電信의 가설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비록 1885년에 청국정부가 서울(京城)과 북경

30) 김영건, 위의 책, 83면.

31) 김영건, 「古都서울-쥘세프 프랑탱」, 위의 책, 102-103면.

32) 김영건, 「京城駐在 佛蘭西外交官略歷」와 「外國文獻에 나타난 五十年前의 朝鮮」, 위의 책.

간에 가설했지만 이후 서울과 부산과의 電柱와 電線의 가설을 외국인 기술자의 지도하에 조선인들이 3개월 만에 이루어내었고 서울에서 인천과 원산까지의 전신도 이른 시기에 완공되었다. 이것은 그가 언급한대로 “朝鮮自體의 發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설의 가설문제는 “朝鮮의 開化譚으로 取扱”했던 것이다.³³⁾ 그러므로 김영건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조선말 혹은 구한말의 조선인들의 자력근대화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조선정보보다는 조선 인민들이 전선 가설을 속히 이루어낸 것에 더 무게를 둔 것이었다.

김영건의 중요한 학술적 업적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조선에 관한 연구 성과를 조선인 독자들에게 자세히 소개해준 것이다.³⁴⁾ 식민지 시기 서구인들은 조선에서 『英國王立亞細亞學會 朝鮮支會報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라는 저널(1900~1940)에 조선에 관련된 연구성과를 꾸준히 실었다. 특히 이 저널의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의 글은 서양의 조선에 관한 연구동향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³⁵⁾ 해방 직후 서양인들에 의한 조선연구는 식민사관에 따른 일본인들의 연구와는 일정하게 구별될 수 있는 면이 있었지만 조선인들이 이를 직접 접하기 어려웠으므로 조선어로 직접 조선의 독자들에게 이들 성과를 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김영건은 조선을 서구에서 Corea가 아닌 Korea로 부르게 된 원인을 일본인들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문명 Japan 이후에 한국이 언급되도록 Korea로 바꾸었고 이것을 국제사회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해방된 조선을 Corea로 표기하자고 주장했

33) 김영건, 「朝鮮開化秘譚-京城釜山間 電信을 우리 손으로 三箇月만에 架設한 天品!」, 위의 책, 104-109면.

34) 김영건, 「歐羅巴學者에 依한 朝鮮研究」, 위의 책, 84-94면.

35)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30 (1931); 이 저널 전반에 대한 평가는 류영익, 「서양인에 의한 한국학의 효시」(『한국사시민강좌』34, 일조각, 2004).

다.³⁶⁾ 그러나 이 문제는 당시 세인들이 가졌던 반일감정에 기초해서 제기된 견해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서구인들은 일본의 한국통치 이전에도 Korea라고 표기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립신문』의 영문판에서도 Korea를, 앞서 언급한 『英國王立亞細亞學會 朝鮮支會報』의 영문명도 Korea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문제에 관한 한 김영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³⁷⁾

김영건이 이렇게 자세히 개화기의 역사와 인물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모름직이 世界의 大勢가 어느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正確히 觀察하여 進步의 民主主義의 諸國家와 서로 힘을 합쳐서 人類社會의 發展에 寄與할 바를 이저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들의 先輩와 우리들의 先親이 犯했던 過去의 실책을 다시 거듭하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즉 해방 후 세계의 대세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세계사의 흐름을 파악해서 조선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볼 수 있다. 그 일환으로서 그는 한국의 대외관계사를 다루었다.

3. 해방 후 역사인식과 활동의 관계

김영건은 20세기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학문이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방 직후 그는, 역사가들의 임무는 “학문은 정치에 초연한 것이라는 그릇된 관념을 일축하고 이 역사적으로

36) 김영건, 「Corea? Korea?」, 『朝鮮開化秘譚』, 95-99면.

37) 이 점에 대해서도 한국학계에서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영호, 「국호 영문표기, Corea에서 Korea로의 전환과 의미」(『역사와 현실』 제58권, 2005. 12), 333-368면 참조. 일제조작설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8) 김영건, 「朝鮮開化秘譚-京城釜山間 電信을 우리 손으로 三箇月만에 架設한 天品!」(『朝鮮開化秘譚』, 정음사, 1947), 112면.

중요한 단계에 있어 우리가 담당해야 할 임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⁹⁾ 그에게 있어서 역사인식은 해방 후 그의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특히 현실, 특히 민족적 과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보를 매우 중시했다. 이는 해방정국에서 좌파들의 전형적인 논법을 김영건이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해방 이전, 그가 학창시절, 예를 들면 1920년대 경성 제2고보를 다닌 이래 막시즘에 노출되었었다.⁴⁰⁾

해방 직후 그가 문학계에서 종사하면서 문학과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은 그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地球우에 아직도 殘存해있는 反民主主義의 「과씨스트」的 諸勢力에 對한 鬪爭의 必要는 朝鮮과 같은 나라에 있어도 그例 에 벗어나지 않나니 朝鮮共産黨中央執行委員會에서 暫定案으로 發表한 『朝鮮文化建設의 路線』이라는 「테-제」가운데에도 그것은 明示되어 있다. 오늘날 文學의 活動의 特殊性을 지나치게 생각해서 政治的活動과 다른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 그것은 枝葉의 問題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全體의 으로는 亦是 文學의 活動도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속에 規定되어 있는 路線에 좇아서 움직이지 안하면 안될 것이다.(강조: 필자)⁴¹⁾

그렇지만 해방 이전의 김영건은 어쩌면 1920년대 상당수 청년들이 그러했듯이 ‘교양’으로서의 막시즘을 배웠을 것이다. 게다가 역설적이게도

39) 김영건, 「學問의 政治性」, 『문화와 評論』(서울: 서울출판사, 1948), 93면 (이 글은 『신천지』 2권 2호(1947년 2월)에 실렸었다).

40) 김영건은 고등교육을 시작할 1927년 2월부터 베트남에 가기 직전인 1931년 1월까지 『조선문단』, 『조선일보』, 『해방』 등에 詩作을 발표했고 다른 문예지에 소설 「苦力」, 「同盟罷業」등을 발표했다. 이로 보건데 젊은 날에 좌익 사상에 심취했다고 할 수 있다. 윤대영, 앞의 논문, 62면.

41) 김영건, 「世界文學의 過去와 將來의 動向」(『문화와 評論』, 서울출판사, 1948), 83면. 이 글은 원래 1946년 2월 8~9일간 서울 YMCA에서 개최된 전국문학자대회에서 「世界文壇의 過去와 今後의 動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그는 프랑스 제국주의의 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연구기관에 오래 몸담고 있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이후부터 태평양전쟁기 말까지 조선인들의 인구가동은 상당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의 북부와 만주에 건설된 공업시설에 조선인들이 100만 이상이, 일본에 100만 이상이 건너가게 되었다. 이들은 전시기 동안 농촌사회와는 다른 차원의 ‘합리적’사회를 각지에서 경험하면서 좌익 내지 자유주의적인 사상에 노출이 되었는데 이에는 일본인들의 차별도 한 몫을 했다.⁴²⁾ 그러므로 해방 후 이들 젊은 세대들은 강렬한 민족의식과 더불어 ‘사회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을 견지하게 된다. 김영건도 프랑스의 식민지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김영건은 해방 이후, 해방 이전 자신이 가져왔던 사상에 대해 ‘반성’을 하고 해방 후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걸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는 1942~44년간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단상들을 해방 이후에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려고 했다.⁴³⁾ 특히 그는 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語錄의 副題目은 1942~1944年の 遺書다. 부르조와 社會의 腐敗한 僞善의인 道德律에 나는 無限한 憤怒를 느꼈던 것이다. 나는 이 稿을 原稿를 發表함으로써 나의 過去를 清算하고자 한다. 空襲하의 憂鬱하던 날을 回想하면서. 44)

42) 커밍스는 인구의 이동이 해방 후 조선 내의 인민위원회의 결성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276-280면.

43) 김영건, 『語錄-1942-1944年の 遺書』(白楊堂, 1947). 이 책의 대부분은 조선인 여성과 사랑에 대한 그의 개인적 의견을 다루고 있다.

44) 김영건, 위의 책, 3쪽.

해방 직후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해오고 있었고 남쪽에는 아직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다. 외국군의 진주와 별개로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2차 대전 후 조선은 독립이 될 것이라고 당연히 믿고 있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을 대신해서 조선인들은 각지에서 지방치안과 정치를 위해 인민위원회를, 산업체관리를 위해서는 각종 자율적인 관리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⁴⁵⁾ 그러므로 당시 문화·예술계에서도 일본인들로부터 조직을 접수해서 자율적인 관리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학술단체 중 김영건이 관련된 진단학회는 해방 이튿날인 1945년 8월 16일에 발빠르게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김영건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이자 幹事에 피택되었다. 이러한 지위확보는 그가 해방 이전부터 진단학회 측과 꾸준히 관계를 가져온 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⁴⁶⁾

해방 직후의 결성된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바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朝鮮文化建設中央協議會)였다. 조직결성 날짜는 8월 18일임에서 보듯이 관련인사들이 해방직후에 조직했다. 조직탄생의 배경을 “새로운 우리정부가 탄생되어 문화예술의 새 정책을 세울 때까지 현 단계의 문화전체에 관한 통일적 연락과 각 부문활동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테서 알 수 있듯이 정부수립 직전까지 문화사업의 조율을 위한 협의체 역할 수행이 이 단체설립의 주목적이었다.⁴⁷⁾ 이 단체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의 분과로 건설부를 산하단체로 했고 의장은 임화(林和)였다. 문학

45) 해방 직후 각 지역에 걸친 인민위원회의 건설에 대해서는 Bruce Cumings, Op. Cit., pp. 267-292; 귀속사업체에 대한 노동자의 자주관리운동에 대해서는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중심으로』(푸른산, 1990), 67-86면.

46) 해방 이전에 그는 이 저널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준높은 글을 발표했다. 김영건, 「安南普陀山名考」(『진단학보』10호, 진단학회, 1939)를, 해방 후 재건호에도 「第 7-13世紀の南海帝囯(조르즈 쎄대-스, 金永鍵 譯)」(『진단학보』15호, 진단학회, 1947)를 발표했다.

47)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결성」, 『매일신보』, 1945년 8월 24일 자.

건설부가 중앙위원장 이태준(李泰俊), 서기장 이원조(李源朝) 아래에 소설부, 시부, 평론부, 외국문학부로 나뉘어져서 각 부의 위원들이 3~5인 정도로 구성되었다. 김영건은 문학건설부의 임원은 아니라 회원명부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문학 쪽에서의 그의 입지가 탄탄하지 못했다.⁴⁸⁾ 그러나 문학건설부 인사들의 면모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집행부 인사들이 식민지시기 카프문학에 가담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해방공간에서의 문학과 정치의 경계를 두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⁴⁹⁾

김영건은 진단학회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관여하면서 문화와 정치의 긴밀한 관계를 실천하려고 했다. 해방 직후에는 교과서를 새로이 편찬해야 하는 일이 학무국(1946년 3월 29일 법령 제 64호로 문교부로 개칭)만 아니라 조선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화두 중 하나였다.⁵⁰⁾ 특히 교과서는 새로운 사회의 교육방향을 확정하는데 매우 중요했으므로 당시 조선 학술원과 더불어 학술단체들은 ‘국정교과서편찬연구위원회’를 결성, 1945년 11월 7일에 총독부 학무국에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전달했다.

교과서 편찬에 관하여 초등·중등학교의 각과정에 亓해서 학무당국과 민간 각학술문화교육 및 개인의 전문가들을 광범한 범위로 망라해서 공동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교과서 편찬의 기본방침을 대중적으로 토의 결정한 뒤에 다시

48) 문학부만 해도 당대의 유명한 인사들인 이태준, 이원조, 이기영, 김남천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 위의 기사.

49) 해방공간에서 정치와 문학과의 관계, 순수·비순수론에 대한 문제는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지식인 작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2006), 522-531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50) 이는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조선교육심의회」의 구성원으로 교육정책을 심의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심의회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사로는 안재홍, 백낙준, 유억겸, 김활란, 김준연, 이훈구, 최규동, 장리욱 등으로 동 심의회 인사들은 60여 명이였다. 심의회에 대해서는 關英子(세키 에이코), 「군정하에 있어서 한국인의 교육재건 노력」(『해방 후 한국의 교육개혁-미군정기를 중심으로』, 서울: 사단법인 한국연구원, 1987), 65-80면.

각전문위원회를 조직해 당해 전문과목의 편집에 당하도록 하기를 건의함.

이 위원회를 구성한 단체로는 조선학술원, 진단학회, 조선지리학회, 조선사회과학연구소, 조선교육혁신동맹, 조선사회교육협회, 조선중등교육협회, 영어학회, 미술교육연구회,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조선문학건설본부, 조선신문기자회 등이었다. 김영건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그 산하단체인 조선문학건설본부, 그리고 진단학회 등과의 관련성으로 이 위원회의 대표로 송석하(宋錫夏), 이정근(李定根), 이원조와 함께 학무국과 교섭을 했다.⁵¹⁾

그러나 당시의 종이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연구위원회의 의견이 얼마나 학무국의 교과서 편찬에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학무국은 1946년 이전에는 주로 한글교육위주로 교과서편찬에 집중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1945년 12월 발간된 『한글 첫걸음』, 『국어독본』등으로 이 발행교과서의 편찬에 조선어학회나 진단학회의 인사들이 학무국의 직원이나 자문위원으로 관련되었다.⁵²⁾

한편 김영건은 1945년 말 ‘조선문학동맹’이 결성될 때 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외국문학위원회의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⁵³⁾ 김영건이 문학가들에게도 넓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조선문학동맹’은 당시 조선내에서 내노라하는 문학인들이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한설야(韓雪野), 이태준, 김기림(金起林), 정지용(鄭芝溶)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와 일본어에 대한 사용능력이 뛰어난 김영건이 외국문학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실제 그는 이 때 이후로 외국문학을 소개하는

51) 「국정교과서편찬연구위원회, 學務局에 건의서 제출」, 『자유신문』, 1945년 11월 9일 자.

52) 關英子(세키 에이코), 앞의 논문, 97-99면. 연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또 다른 점은 ‘민주주의 교육’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영향력이었다.

53) 「조선문학동맹 결성, 각부 위원 결정」, 『자유신문』, 1945년 12월 25일 자. 문학동맹의 결성은 12월 13일 자이다.

글을 언론에 수차례 기고했다. 당시 그가 몸담은 ‘문학동맹’의 임원들이 해방정국에서 차례로 월북을 함으로써 김영건의 위치는 더 격상되었다.

1945년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남북한은 신탁통치문제로 정치세력이 새롭게 재편되었다.⁵⁴⁾ 남한 내에서 ‘인민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온 각 사회단체 등은 미소공위에서 결정된 ‘임시정부’와 ‘신탁통치’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했다. 그리하여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공위의 협의대상 사회단체 혹은 임시정부 구성에서 구심점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을 구성했다. 여운형, 허헌, 박헌영, 김원봉, 백남운 등이 의장단으로 사무국장으로 이강국 등이 주도하는 좌파내지 중도좌파로 구성된 조직으로⁵⁵⁾ 점차 남로당이 주도하게 되었다.⁵⁶⁾ 이 조직은 중경임시정부와 이승만 등이 결성한 비상국민회의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리고 이들이 발전한 민주의원과의 대립점을 명확히 했다.⁵⁷⁾

민전은 그 결성목적은 “지금 조선의 정치태세는 민주주의 노선과 반민주주의 노선의 원칙적인 대립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나 반민주주의 노

54) 이에 대해서는 Bruce Cumings, *Op. Cit.*, pp. 214-227;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53-200면 참조.

55) 조직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브루스 커밍스 외, 『분단전후의 현대사』(일월서각, 1983), 485-492면의 자료편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결성” 참조.

56) 당시 남로당 측이 인민위원회 내에서 주도한 ‘조선인민공화국’선포는 미군정의 군정 이외의 정부형태의 불인정이라는 입장과 정면충돌을 했는데 이는 산하의 각 조직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에 따르면 초기 좌익 혹은 중도파 인사들이 주도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측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당시 협의회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었다. 임형택·민충환 편, 『해방전후-이태준 단편선』(창작과 비평사, 1992), 284-287면.

57) 민주의원파 민전과는 별도로 중간파로서 좌우합작을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 김규식, 여운형(민전 탈퇴 후) 등인데 이는 해방정국에서 상당수의 지식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 이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오기영, 『민족의 비원-자유조국을 위하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 (이 책은 『민족의 비원』(서울신문사, 1947)과 『자유조국을 위하여』(성각사, 1948)을 현대식 어법에 맞추어 재출간한 것임)에 실린 여러 글을 참조.

선이란 민족을 오도하는 한낱 반동적 현상으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민주주의의 각 정당, 제 대중단체, 종교, 문화, 과학, 기술, 교육, 군사, 언론 등의 진보적 분자를 총망라하여 민주주의적 민족통일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수립키로 했다”라고 정의했다. 민전 측에게 ‘민주주의’는 바로 ‘민족주의’와 관계가 되었는데 “민주주의 노선을 떠나서 민족통일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이 통일공작은 공산당, 인민당, 인공 측의 최대의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頑冥한 臨政중안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의하여 실패”했다고 규정했다.⁵⁸⁾ 이는 신탁통치과동을 통해서 좌익 측이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전의 사무국에는 조직부, 선전부, 문화부, 재정부 등이 있었는데 문화부장에는 이태준, 차장에는 김태준(金台俊) 등 포진해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조선문학동맹’관련 인사들이었다.⁵⁹⁾ 이들은 조선문화단체총연맹(약칭 문련)⁶⁰⁾, 조선문화협회 등의 회원이었는데 이들 조직들은 조선공산당, 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과 함께 민전의 산하단체로 속해있었다.⁶¹⁾ 김영건은 이들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 했으므로 민전 측의 노선을 대체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민전 활동의 일환으로 1946년 2월 8-9일에 개최된 조선문학자대회에 참여해서 「世界文壇의 過去와 今後의 動向」라는 제목으로 보고연설을 했다.⁶²⁾ 그는 이 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련, 미국, 중국 등지의 문학의 동향을 일별하면서 문학가들이 “전쟁 중에 事物을 歷史的으로 또는

58) 부르스 커밍스 외, 앞의 책, 486면.

59) 부르스 커밍스 외, 위의 책, 490면.

60) 김영건은 문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했는데 초기의 지도자들이 대거 북으로 올라가자 1947년 현재 대표자는 그였다. 문련에 반대해서 우익문화단체 29개는 1947년 2월 12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문총)를 만들었다. 문화단체의 운명도 남로당의 운명과 남한 정세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김윤식, 앞의 논문, 520-521면.

61) 브루스 커밍스 외, 앞의 책, 492면.

62) 「조선문학자대회 2일째」, 『조선일보』 1946년 2월 10일 자.

社會的으로 觀察하게” 된 것을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즉 그의 기준은 현실정치에 문학이 복무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는 전쟁시기에 작가들이 생산한 ‘報道文學’도 높게 평가했다.⁶³⁾ 동년 2월 말에 민전 상임위원회(사무국장 이강국)는 ‘教育 及 文化對策 研究委員會’(56명)와 ‘經濟對策 研究委員會’(26명)를 선정했는데 김영건은 전자에 임명되면서 그의 사회적 지위는 한층 격상되었다.⁶⁴⁾

이때만 해도 신탁통치와 ‘임시정부’구성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미소의 협조노선이 유지되고 있었다. 김영건도 소련의 사회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 대 군국주의자·국수주의자 간의 전선을 높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스탈린과 루즈벨트의 전시협조노선을 높게 평가했다.⁶⁵⁾ 이러한 그의 낙관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소간의 균열은 점차 명확해졌다.

김영건이 문학작품활동과 함께 신경을 썼던 부분은 언론활동이었다. 우선 일간신문으로 『現代日報』가 1946년 3월 22일 자로 창간되었는데 그는 이 신문사의 외보(外報)책임자가 되었다. 主幹에 이태준, 主筆에 이치우(李致祐), 그리고 編輯長에 김기림이 임명되었다.⁶⁶⁾ 이 신문은 당시 제1차 미소공위를 앞두고 민전 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미소공위에 민전 측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이 짙다. 그러나 신문을 통한 언론활동은 쉽지 않았다.

당시 동년 6월 19일에는 서울종합대학안이 발표되고 9월 초순에는 국립 서울대학교 출범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교수 30여명

63) 김영건, 「世界文學의 過去와 將來의 動向」(『文化와 評論』, 서울출판사, 1948), 80-81면.

64) 「민전, 교육및 문화대책연구회위원과 경제대책위원회위원 선정」, 『서울신문』 1946년 2월 26일 자.

65) 김영건, 「世界文學의 過去와 將來의 動向」(『文化와 評論』, 서울출판사, 1948), 85-86면.

66) 「『현대일보』창간」, 『서울신문』 1946년 3월 24일 자.

이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동년 5월에 공산당 위조지폐발행 사건에 대한 공판이 7월 29일에 개시되면서 여름 이후 남한의 정국은 혼란 속에 있었다. 이에 미군정측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태의 배후로 공산당을 지목하고 여러 인물들을 구속했다. 아울러 이러한 좌익통제의 일환으로 민전 측의 『朝鮮人民報』, 『現代日報』, 『中央新聞』 등의 언론매체에 대해 1946년 9월 6일 자로 정간 조치를 내렸다.⁶⁷⁾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5월 20일에 휴회되었고 미군정은 미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좌우합작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려고 했다. 좌우합작과 함께 여운형을 좌파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안이 실시되었다. 이는 민전관련 신문사들의 정간과 더불어 박헌영, 이강국, 이주하 등 공산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김영건의 언론활동도 순탄치는 않았다. 『現代日報』는 이듬해인 1947년 1월 초에 다시 속간되었지만 사장(서상천)이하 간부들이 전원 교체되었다.⁶⁸⁾ 운영진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김영건은 이 신문으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고 1947년 3월 11일에 창간된 『문화일보』에서 이후 주필로 활동하게 되었다.⁶⁹⁾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선거 후 1946년 12월에 입법의원을 개원시켰다. 이즈음 김영건은 베트남의 경험

67) 브루스 커밍스 외, 앞의 책, 492-294면의 “공산당간부 체포령과 인민, 현대, 중앙 3지 정간에 즈음한 공보부 특별발표(1946. 9. 7)”; 『同業 三新聞停刊, 朝鮮人民報·現代日報·中央新聞』, 『동아일보』 1946년 9월 7일 자.

68) 『現代日報續刊』, 『동아일보』 1947년 1월 7일 자. 속간된 신문도 사장 외 운영진 5명이 명예훼손죄로 고발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徐相天氏事件 書類 送廳, 現代日報社長으로 범령 十九호 위반 명예훼손죄』, 동신문 1947년 1월 18일 자. 아울러 이후에는 민전 측으로 완전히 이탈한 언론 활동을 한 것 같다. 예를 들면 해방 후 일민주의와 깊이 관련된 양우정(梁又正)이 현대일보에 몸담기도 했다. 양우정, 『普選實施와 나의 提言(普選 特輯)』, 『민주조선』 1947년 12월 1일 참조.

69) 윤대영, 앞의 논문, 77면.

을 배경으로 베트남에서의 외세배격에 동의했다. 그는 베트남에 돌아온 프랑스 측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베트남인들의 항쟁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는 한국상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동시에 월남의 상황이 월남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⁷⁰⁾ 당시 김영건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1946년 12월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한 협상이 미소 간에 진행 중이었고 미군정에서도 중도파를 중심으로 극우세력을 배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좌우합작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다.⁷¹⁾ 그러나 베트남의 상황과 조선의 상황을 유비시키는 그의 통찰력은 이듬해 개최된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마저 결렬되면서 전개되는 사태를 오히려 더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김영건은 문화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치적으로 민전의 입장을 지지했다. 언론인으로서 타격을 입었지만 그는 1947년 2월 초에 문련의 대표자격으로 산하의 조선문학가동맹·연극동맹 측과 함께 수도경찰청과 대립했다. 왜냐하면 직전에 발표된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의 포고, 즉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정치사상의 선전을 금지’하는 안이 예술계의 정치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군정청 아처 러치(Archer L. Lerch)에게 전달한 서신은 문화계의 해방 후 역할에 대한 김영건의 ‘소신’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흥미롭다.

첫째, 흥행장에서 상연되는 예술 가운데 표명된 정치사상의 선전을 금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금지와 동의어입니다. 예술은 인류의 사상표현 및 선전의 중요방법이며 정치사상이 들어있지 않은 예술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민인이 예술을 통하여 자기들의 정경 사상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둘째, 정치사상을 선전하여서 치안이 교란되면 포고령에

70) 「보라-越南人民抗爭-崎嶇한 運命 朝鮮과 恰似」, 『조선일보』 1946년 12월 31일 자.

71) 김영건의 베트남에서의 좌우합작에 대한 기대와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윤대영, 앞의 논문, 88면.

의하여 처벌한다 하였으니 이 고시는 실로 극장을 파괴한 테러단을 방임하고 테러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혼란의 책임을 예술가에게 전가하던 예술제 공연시의 경찰행동을 법령화하려는 것입니다.⁷²⁾

즉 해방 이후 예술을 통해 미군정과 우익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는 장택상 등의 ‘조선과도정부’(1947년 초)에 대해 민전 측 예술계가 강력히 반발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세계노동연맹극동조사단’이 조선을 방문할 때 김영건은 환영단의 일원이 되기도 했지만⁷³⁾ 해방정국의 혼란은 해결되지 않았다.

1947년 중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구성을 둘러싼 협의자 격자들의 선정을 둘러싼 공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신문기자회도 대책을 강구했다. 1947년 6월 20일에 서울시내 21개 신문사의 기자대표들이 모여서 중앙확대위원회를 개최한 후 미소공위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협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서 선출된 신입위원장단에 김영건은 외교부장으로 선임되었다.⁷⁴⁾ 이회에서는 미소공위의 정상적인 지속과 조선인 사회단체들의 협의를 미군정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남한 내에서 중도세력들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합작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1947년 7월 27일에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조선 내에서 좌우합작의 꿈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잘 알려진 대로 미군정은 한국문제를

72) 「조선문화단체총연맹,극장홍행 고시에 관한 건의서 제출」, 『조선일보』 1947년 2월 2일 자.

73) 「민전, 세계노동극동조사단 입국환영준비위원회 조직」, 『서울신문』 1947년 3월 19일 자.

74) 당시 선출된 신입위원장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단 이상호, 양재경, 문동욱, 정진석, 김기림이고 사무국장 서강백, 총무국장 진학주, 재정부장 안덕근, 조직부장 이후협, 연락부장 조병구, 조사부장 남정준, 사업부장 최금동, 출판부장 서관구, 외교부장 김영건, 문화부장 배은수이다. 「조선신문기자회 공위 참가 결정」, 『조선일보』 1947년 6월 22일 자.

유엔으로 넘겼고 유엔은 총회를 통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해서 이듬해인 1948년 5월 선거를 통해 한반도 남쪽에서 독립국가를 탄생시키려고 했다. 1948년 5·10선거 이후로는 남한 내에서 더 이상 민전의 입장, 즉 모스크바 3상회의 절대지지,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과의 회담 등의 노선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았다.

김영건은 이후 직접적인 정치활동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것 같다. 1948년 4월 14일에 남한에 있는 108명의 문화인들이 남북회담 지지성명을 발표했는데 김영건이 이 명단에 없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정치문제로부터 완전히 비켜있었던 것 같다.⁷⁵⁾ 이 기간 그는 그간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서 저서로 만드는데 집중했던 것 같다. 『文化和 評論』(1948년 6월), 『黎明期の 朝鮮』(1948년 7월)의 발간은 그 결과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건은 자신이 발간한 글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는 역사상 만주에서 조선인들의 역할 중 독립운동시기 조선인들의 투쟁을 높게 평가했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지도층을 찬양하는 부분이다.

日本帝國主義의 壓政 밑에서, 滿洲는 우리가 잊지 못할 獨立運動의 溫床이 되어왔던 것이다. 西伯利亞에서 감기지 않는 눈을 감으신 채 세상을 떠난 李東輝先生, 間島의 血戰에 無慘히도 목숨을 빼앗긴 無數한 革命的 烈士, 白頭山の 호랭이로서 倭敵의 肝膽을 서늘케하던 金日成將軍, 北滿의 曠野를 疾走하던 崔容健將軍, 우리가 滿洲의 獨立運動을 「테에마」로 하여 偉대한 國民의 敘事詩를 쓸 때에, 어느 것 하나 빼어 놓을 수 없는 별빛과 같이 빛나는 이름들이 다.⁷⁶⁾

이동휘는 1910~20년대 함경북도와 러시아영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

75) 이 명단에는 당시 김영건과 비슷한 연배의 인사들이 많으므로 김영건이 의지를 가졌다면 서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명단은 브루스 커밍스 외, 앞의 책, 517~520쪽의 “문화인 108명 連署 남북회담 지지성명(1948. 4. 14)”을 참조.

76) 김영건, 「古代的 滿洲와 朝鮮」, 『黎明期の 朝鮮』, 77면.

동가이고, 이 글이 출간될 시점에 김일성과 최용건은 각각 인민위원회 의장,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의 자격으로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여순반란사건이 발발하고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1948년 말 이후에는 결코 그에게 유리한 것이 될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 글이 「한글에 관한 단상」, 『한글』(한글학회) 제105호인테 이후의 김영건의 활동은 명확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⁷⁷⁾ 이 직전 혹은 마지막 글이 출간된 이후에 북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은 있다.⁷⁸⁾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로 북한에서 김영건이 문학가 협의회 등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김영건은 북으로 올라간 좌익인사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좌익전향자들의 조직인 保導聯盟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처형을 당했을 수도 혹은 전쟁 중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 혹은 이름을 바꾸어서 은거했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로서는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그의 주된 활동무대가 서울이었다는 사실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월북보다는 ‘자유주의자’로서 남한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는 선택지를 그가 진지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한국전쟁은 김영건과 같은 인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여지없이 축소시켰던 것은 확실하다.

4. 결론

이상에서 식민지시기 조선인으로서의 매우 드물게 베트남에서 활동하

77) 윤대영, 앞의 글, 78면.

78) 이런 추정의 근거로 1948년 2월 13일에 그가 전국문화단체 총연맹의 대리인으로서 조직의 약화와 여건의 불리함을 북측에 보고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김윤식, 앞의 논문, 521면. 김영건이 이러한 서신을 북에 보냈을 가능성은 높지만 김윤식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면서 일본과 동남아(베트남)를 연구하면서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자료를 틈틈이 모아둔 김영건의 한국학에 대한 특징과 그의 해방 후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김영건의 사상과 활동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적어 보고 이 시기에 관련된 연구의 전망을 생각해보고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김영건은 식민지 조선에서 보기 드물게 다른 지역사, 특히 동남아시아(베트남 포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 인물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그가 고등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는 우수한 일본인, 프랑스 연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둘째, 그의 베트남사 연구에서 방법이자 관심사인 대외관련 역사는 전운이 짙게 낀 1940년대 초 김영건이 조선에 돌아온 후 조선의 대외관계사를 연구하는 방법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도 한국사를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상의 선구로서 ‘한국학’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의 베트남에서의 활동경험은 조선의 처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이는 ‘신민족주의’ 혹은 ‘신민주주의론’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물론 이 점은 김영건과 베트남 현대사에 대한 이해라든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주장이다.

셋째, 베트남에 연구자로 가기 전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했던 그의 문예활동은 그로 하여금 해방 이후 문학과 역사, 그리고 정치의 삼각관계를 긴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그는 민전 측의 ‘민족문학론’ 혹은 문학의 민족문화건설에의 복무 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소지했던 것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김영건과 같은 ‘좌파’들이 설 자리는 거의 사라졌다. ‘민족문학론’은 1960-70년대의 새로운 세대의 성장을 기다려야 했다.

해방 직후 김영건을 포함한 많은 조선인들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주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은 분단과 전쟁 등으로 혹독한 흥역을 치

렀다. 다만 1980년대의 ‘민주화’의 열정을 지나서야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고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가 던진 화두 중 문학, 문화와 정치와의 긴밀한 관계는 21세기 한반도의 현실과 학문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숙연한 감정을 가지게 한다. 그의 해방 직후의 역사, 문화, 정치에 대한 실천과 인식은 오늘날 연구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ABSTRACT

Kim Yung-kun's Perception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Foreign Relations and His Life, 1945-1949

This study deals with Kim Yung-kun who survived the catastrophic period : Korean colonial and American military rule era. Kim, as was very rare case at the time, worked in the French Research Institute of Far East, Hanoi in Vietnam, 1931-1940 collecting and analysing some documents related to Japanese and South East Asia. Due to the political instability, he returned to Colonial Korea through Japan and began his study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foreign relations. In that study, he focused on historical traces in Korea-South East Asia and Manchuria. At the time of Korean liberation from Japan, with his early interest in literature and Marxism, he developed his keen interest in Korean national issue. His international experience contributed to this new curiosity. Kim, therefore, participated in left-wing literature society, National Association for Chosun Cultural Organizations (Chosŏn munhwadanche chongyŏnmaeng) under the Democratic National Front (Minjujuŭi minjok chŏnsŏn) as well as “neutral” Tan'gun State Society (Chindan hakhoe). With history and literature writings, Kim was concerned with the boundary between politics and scholarly works while he touched on the reporter's job. Through the change of political atmosphere, his senior members crossed 38th parallel to the north, the change that elevated his position in left-wing organization. His activities based upon “scientific” approach to the world and firm belief in “democracy” lost its vital life

following the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is case shows the fate of a nationalistic and left-wing intellectual just after Korean liberation from Japan.

KEY WORDS : Kim Yung-kun, Vietnam, Tan'gun State Society (Chindan hakhoe), Democratic National Front (Minjujuui minjok chönsön), National Association for Chosun Cultural Organizations (Chosön munhwadanche chongyönmaeng), Korean-French Relation.

■ 참고문헌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서울신문』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종자 자주관리운동을 중심으로』, 푸른산, 1990.

김영건, 「安南普陀山名考」, 『진단학보』10, 진단학회, 1939.

_____, 譯, 「第 7-13世紀의 南海帝fff國(조르즈 쎬대-스)」, 『진단학보』15, 진단학회, 1947.

_____, 『語錄-1942-1944年の 遺書』, 白楊堂, 1947.

_____, 『朝鮮開化秘譚』, 正音社, 1947.

_____, 『黎明期の 朝鮮』, 正音社, 1948.

_____, 『文化와 評論』, 서울출판사, 1948.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지식인 작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2006.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류영익, 「서양인에 의한 한국학의 효시」, 『한국사시민강좌』 34, 일조각, 2004.

브루스 커밍스 외, 『분단전후의 현대사』, 일월서각, 1983.

關英子(세키 에이코), 「군정하에 있어서 한국인의 교육재건 노력」, 『해방 후 한국의 교육개혁-미군정기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연구원, 1987.

오기영, 『민족의 비원-자유조국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

윤대영, 「1930-40년대 김영건의 인생 역정과 베트남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9/3, 한국동남아시아학회, 2009.

이영호, 「국호 영문표기, Core아에서 Korea로의 전환과 의미」, 『역사와 현실』58, 한국역사연구회, 2005.

임형택·민충환 편, 『해방전후-이태준 단편선』, 창작과 비평사, 1992.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Underwood, Horace H.,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30 (1931): 1-15.